

##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 송진우

김 형 석 (독립기념관 관장)

일제강점기 중앙학교와 동아일보를 통해 국내 민족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새 나라 건설에 앞장섰던 고하 송진우(1879-1945)가 세상을 떠난 지 80주기를 맞이했다.

고하는 그의 사후에 이름 높은 '민족주의 사가(史家)'인 위당 정인보(1893-1950)가 이충무공과 비견했을 정도로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추앙을 받던 지도자이다.

(정인보는) “고하는 그 지조, 도량, 판단력, 식견, 통솔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충무공 이래의 처음 인물이며, 그 후 언제나 이런 위재(偉才)를 우리나라가 가질 것인가.” “고하가 일제 치하 암흑시대에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을 이끌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어 갈 길을 밝힌 공로는 임란 시 이충무공의 공적에 비길 수 있다. 임진왜란 시는 무력하나마 뒷일을 보살필 정부가 있었지만, 선생은 나라가 망한 후 오직 민족을 믿고 민족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일생을 헌신했다.”고 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인 김병로(1887-1964), 애산 이인(1896-1979) 등 당대의 지조 있는 지식인들도 독립운동가로서 고하의 행적을 높이 칭송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하가 남긴 독립운동에의 큰 공적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는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에 관한 평가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의 지도자로 민족개량주의적 성격을 띤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1920-30년대 민족운동을 '타협'='우파' '비타협'='좌파'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구분하고, '타협'이 곧 '친일'인 것처럼 간주하는 역사인식 때문이다. 더욱이 그와 함께 활동했던 동아일보와 한민당 계열의 일부 인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히게 되자, 이와 무관한 그의 행적도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하는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개인의 통전적인 삶'이 아니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행적과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한 개량운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른 역사 인식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하 사후 80년간의 연구 성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독자적인 논문이라기보다 지난해 발표한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보완하는 내용임을 밝힌다.

1. ‘민족주의 우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들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운동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그 중에도 국내 민족운동 연구의 텍스트로 간주되는 박찬승의 『한국 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은 서론에서 민족주의 우파를 이렇게 정의한다.

민족주의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정치세력은 주로 1905년 이후 1010년대 말까지 국내외, 특히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지식층들이었다. 1920년대는 부르주아민족주의 우파의 진영에 머물렀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점차 친일의 길을 걸어 반민족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민당 등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극우세력을 형성하면서 남한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sup>1)</sup>

그러면 ‘1910년대 일본 유학생’ -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론자’ - ‘1930년대 친일 반민족행위자’ - ‘1945년 이후 한민당과 극우세력’이라는 이 도식은 맞는 주장일까? 박찬승에 의하면 민족주의우파의 정치사상과 운동론의 핵심은 ‘실력양성운동론’이며, 주체는 1910년대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지식층이다. 1920년대에는 문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실력양성운동을 펼쳤는데, 선전기관으로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동아일보>와 <개벽>이다. <동아일보>에는 송진우, 장덕수, 이상협, 진학문, 장덕준, 이광수, 김양수 등이 문화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기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sup>2)</sup>

이상에서 박찬승의 ‘민족주의 우파’는 송진우를 비롯한 동아일보 계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을 연구한 윤덕영에 의하면, 동아일보 계열이란 동아일보·보성전문·경성방직 등으로 모인 세력과 이들과 긴밀하게 결합된 호남 출신의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1945년 시점에는 김병로, 김성수, 김용무, 김준연, 라용균, 박용희, 박찬희, 백관수, 서상일, 설의식, 송진우, 이운, 장덕수, 정인보, 한남수, 함상훈, 홍성하, 현상윤 등이 해당된다.<sup>3)</sup>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성분을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동아일보 계열 인사의 정치적 성분<sup>4)</sup>

독립유공자	김병로(1887-1964) 김양수(1896-1972) 김준연(1895-1971) 라용균(1895-1984) 박용희(1884-1954) 서상일(1886-1962) 송진우(1890-1945) 장덕준(1891-1920) 정인보(1893-1950)
친일반민족 행위자	김성수(1891-1955) 이상협(1893-1957) 장덕수(1894-1947) 진학문(1894-1974) 함상훈(1903-1947)
해당 없음	김용무(1891- ? ) 백관수(1889-1951) 설의식(1900-1954) 현상윤(1893-1950) 홍성하(1898-1978)

1)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 (역사비평사, 1997), p.16.

2) 위의 책, p.167.

3) 윤덕영, 『일제하-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p.19.

이처럼 동아일보 계열의 구성원들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행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운동가’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집단화할 수는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박찬승이 정의한 ‘1910년대 일본 유학생’ -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론자’ - ‘1930년대 친일반민족행위자’ - ‘1945년 이후 한민당과 극우세력’이란 도식은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가 있다. 1920년대 실력양성론자들이 1930년대 친일반민족행위자도 아닐뿐더러, 1945년 해방 이후 극우세력이 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운동에 관하여는 실력양성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운동과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운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실력양성운동은 1920년대 초반의 신문화건설, 산업진흥, 민족개조 등을 표방한 ‘문화운동’과 1920년대 중반 이후 ‘자치운동’을 가리킨다.<sup>5)</sup> 그런데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1963년 조지훈은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문화항쟁은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문화적으로 일제에 대응하여 민족적 애국주의를 드러낸 자주독립운동의 일환이다”고<sup>6)</sup> 정의했고, 1969년 조용만은 「일제하의 우리 신문화운동」에서 “일제하 신문화운동은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일제의 동화주의 문화정책에 저항한 운동이다”라고<sup>7)</sup> 설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5년 ‘동아일보 강제 해직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사주 일가에 대한 비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언론인들에 의해 일제하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으로 전이 되었다. 1978년 최민지·김민주의 『일제하 민족언론사론』을 시작으로 서중석, 위기봉, 정운현 등의 저술이<sup>8)</sup> 계급투쟁에 기초한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되었다.

일제하의 기자 조직과 이들의 활동은 식민지하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언론이 식민지 현상을 타파하여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에 기여할 것인가의 싸움으로, 그들은 식민지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의 동맹자로 길러진 경영주에게 대항하여 민중이 요구하는 민족 언론의 사명을 올바르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sup>9)</sup>

4) 이 표는 『독립유공자공훈록』과 『친일인명사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5) 박찬승, 앞의 책, p.20.

6)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3), pp.28-30.

7) 조용만, 「일제하의 우리 신문화운동」,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고려대아세아문화연구소, 1969), p.6.

8) 최민지·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 서중석,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위기봉, 『다시 쓰는 동아일보사 - 인촌 김성수와 동아일보, 그 오욕과 배반의 역사를 찾아서』, (녹진, 1991) ; 정운현, 『황국신민이로소이다』, (개마고원, 1999)

9)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p.417. - 일제하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을 설명하는 교과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판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저자인 최민지는 신문평론가 최옥자의 필명이며, 김민주는 당시 두 살배기이던 그녀의 딸이다. 1969년 이화여대 신문학과 재학 시 이대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내고, 1972년 이대 대학원에서 신문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한 그녀는 대한YWCA 출판공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제말 민족언론의 오욕상> <일제하 기자운동의 전개> 등의 저술을 통해 언론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1975년 3월 15일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에 소용돌이 치던 때 둘째 딸이 태어나자 마산의거기념일과 같은 날이라는 뜻에서 ‘민주’라고 작명하였다. 그런데 1977년 9월 13일 이 책의 저술을 거의 마쳐가던 시기에 민주가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화운동에 전념하던 남편 김승균이 ‘도서출판 일월서각’을 설립하여 첫 번째 도서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최민지와 딸 김민주를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시 민주화 열망과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였다는 특징과 더불어 학문적으로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뿐 아니라 서중석을 제외하면 역사학자로 전문적 소양을 쌓지 않은 언론인이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철저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sup>10)</sup>

한편 1980년에는 재일 사학자 강동진(1925-1986)이 『일제의 한국 침략정책사』에서 <재등실 일기>에 나타난 사이토 총독과 민족주의 인사들의 면담 횟수를 공개했는데, 그의 총독 재임기간(1919.9-1926.12)동안에 송진우 15회, 김성수 14회, 이승훈 14회, 장덕수 12회, 이상협 8회 등 동아일보 주요 인사가 망라되었다.<sup>11)</sup> 강동진에 의하면, 이런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식민지 당국자의 계략에 빠진 존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20년대 일제가 자치제를 실시하려고 하자, 민족주의 우파에서 타협적 성격의 자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타협’과 ‘비타협’ 세력으로 분열되었다는 전제에서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이 조망되었다.<sup>12)</sup>

이에 대해 자치론과 미일전쟁의 관계에 주목했던 조성구는 이러한 강동진의 해석에 의문을 던졌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실력양성운동과 자치운동을 단지 타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실력양성운동과 자치운동을 ‘타협’과 ‘비타협’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염두에 둔 광복(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sup>13)</sup>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사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1943-)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세력은 식민지 본국 및 총독부와 정치적 동맹을 맺은 관료적 기생적 지주와 미약한 부르주아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해방 직후 결성된 한민당은 지주에 토대를 두고 지도자 대다수가 친일 경력을 가진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커밍스의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 뿐 아니라, 조선의 민족부르주아지 및 우익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입장의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커밍스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 발전 노력이 가진 동력이나 발전 경향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sup>15)</sup>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박찬승이 정의한 ‘1910년대 일본 유학생’→‘1920년대 실력양성운동론자’→‘1930년대 친일반민족행위자’→‘1945년 이후 한민당과 극우세력’이란 도식은 그의 생각이기보다 진보적 역사학계의 시각을 설명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한편으로 1920년대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의 기본 이념을 문화적 민족주의라 명명하고, 문화운동론은 실력양성론으로 집약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념과 운동론에 기초하여 신문화건설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자치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찬승이 주장한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론은 동화주의자들의 실력양성론과는 달리, ‘독립’을 궁극 목적으로 표방한 ‘선 실력양성, 후 독립’을 가리킨다는 것이다.<sup>16)</sup>

10) 김형석, 『끝나야 할 역사전쟁』, (동문선, 2022), pp.206-219.

11)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p.171, 397.

12) 윤덕영, 앞의 논문, p.10.

13) 趙聖九, 『朝鮮民族運動と副島道正』, (東京: 研文出版, 1998), p.240.

14)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rden History*, Norton, 1997. 김동노 외 역,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272-273쪽. 304쪽.

15) 윤덕영, 앞의 논문, pp.12-13.

그럼에도 박찬승은 결과론적으로 개량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것은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궁극적 과제와 관련하여 좌우 합작에 의한 민족통일전선 결성과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국가 건설이란 목표 의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찬승이 일제 치하 민족주의 우파를 비판했다면, 해방 후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우익 세력에 대한 비판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 서중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이 일제 치하에서는 제국주의 침략 논리인 사회진화론과 일제 침략전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극우 정권 수립과 반공 단정 노선을 추진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sup>17)</sup>

## 2. ‘민족주의 우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들

민족주의 우파의 자치와 타협을 민족운동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승렬·윤덕영·이지원 등으로 이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수학한 공통점이 있다.

‘일제 파시즘기 조선인 자본가’의 관점에서 동아일보 계열의 경제적인 활동을 다룬 이승렬은 조선 왕조의 변방인 호남에서 해외와의 자유무역을 활용하여 성장한 지주 출신 자본가로 경성방직과 동아일보를 세운 전라도 고부의 김성수 일가를 주목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교육(학교)·경제(방직산업)·문화(언론) 등의 영역에서 한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한 결과 계몽적이면서 온건한 민족주의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평안도의 상업세력에서 성장한 시민세력과 협력해서 3.1운동에 기여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운동 과정에 나타난 좌파와 우파의 개혁적 이념이 통합된 대한민국 수립과정에도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 의회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18)</sup>

또 한말부터 1930년대까지 발생한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저항운동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의 근대성·정체성 관점에서 접근한 이지원은 1920년대 문화주의 민족문화론이 타협적·자본적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는 각종 문화·사회운동에서 ‘민족 일치 대동단결’을 고취하고, 나아가 동화주의를 비판하며 조선인의 정치적 독자성을 추진하였던 자치운동의 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1930년대 일제의 파시즘 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서도 민족문화·민족의식을 선양하고자 한 주체들은 파시즘과 반파시즘성을 구분하는 단서를 제공하였고, 식민지하에서 전통의 근대적 전환으로서 민족문화는 독자적인 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사상과 실천 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9)</sup> 그 결과 동아일보 세력을 비롯한 민족주의 우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하 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에 관한 박사논문을 쓴 윤덕영은 “동아일보 계열에 대한 연구는 대지주이자 대부르주아지로 일제에 의해 끊임없는 타협과 개량의 위험 요소를 지녔던 김성수로 대표되는 흐름과

16) 박찬승, 앞의 책, p.17.

17) 서중석,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pp.271-273.

18) 이승렬, 『근대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그물, 2021), p.26.

19) 이지원, 『한국 근대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pp.30-31.

48인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주도했으며 일제 말기까지 친일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사상도 수용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수완을 갖고 있는 송진우로 대표되는 흐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이에 더하여 "김성수를 중심에 놓고, 송진우를 '김성수의 자장(磁場)하에 있는 인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앞뒤가 서로 바뀐 인식이다."고<sup>21)</sup>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두 사람을 교제한 유진오(1907-1987)의 증언에 의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촌은 고하에게 신문사 일을 일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이 다 알듯이 인촌과 고하 두 분은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 아니라, 둘도 없는 동지로서 일심동체가 되다시피 하여 일생을 보낸 분들인데, 매사에 있어 인촌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대고 하는 참모의 일을 맡았다면, 고하는 밖에서 장병을 지휘하면서 전투에 종사하는 사령관 일을 보신 셈이다.<sup>22)</sup>

이처럼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을 평가할 때, 인촌보다 고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좌, 우파를 막론하고 민족운동에 참여하던 인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sup>23)</sup> 이런 관점에서 고찰할 때, 동아일보 계열의 근대 개혁과 신국가 건설노선이 한말 지주적 입장의 근대화 노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상의 수용에 따라 지주제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지주의 자본가로의 전환과 독자적 발전을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24)</sup>

### 3. 1920·30년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sup>25)</sup>

일제하 민족문화운동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독립운동이라고 전제할 때, 1910년대 민족주의사상·운동은 문명개화·근대지상주의를 추구하는 타협적 실력양성운동과 전통을 중시하는 국수주의적 비타협적 무장운동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민족자결의 세계 개조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운동이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한 것이 자본주의 문명 수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 문화운동이었다.<sup>26)</sup> 다시 말해 1920-30년대 문화운동은 3.1운동

20) 윤덕영, 앞의 논문, p.21.

21) 윤덕영,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 체제 비판에서 체제 굴종으로」, <사학연구> 108호, (국사편찬위원회, 2012.2), p.197.

22) 유진오, 「仁和 知의 指導者 仁村 先生 七週忌를 맞이하여」, <동아일보> 1962.2.18.(2).

23) 김형석,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 (동문선, 2024), pp.124-126. ; 이 같은 생각에는 대표적인 인촌 연구자인 이승렬도 동의한다. 그는 “한민당에서 송진우가 드러난 중심이었다면, 김성수는 그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중심이었다.”고 설명한다.(이승렬, 앞의 책, p.589)

24) 송진우, 「소작입법의 필요」, 《조선지광》(1929.1) 및 1945.9.16에 발표된 <한민당 정강정책> 참조.

25) 이 글은 지난 해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 '독립'과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 중의 제2장 '송진우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다.

26)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p.157. ; 앞에서 필자가 이지원을 '연세 학파'로 소개한 것은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자유주의적 민족자결의 세계 개조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민족운동이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한 것으로 자본주의 문명 수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이며,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한 것이 동아일보이다.<sup>27)</sup>

따라서 1920·30년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사회 발전과 독립역량 배양을 위한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전통문화 보존 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자치운동, 브나로드운동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 1) 전통문화 보존 운동

### (1) 단군 영정 공모와 백두산 기획 보도

3.1운동 이후 신지식인층의 주도로 펼쳐지는 실력양성운동의 흐름 속에 동아일보는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선두에서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동아일보는 창간 사설에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의식적 사회운동을 문화운동이라 칭하고 문화주의를 제창했다.

이는(문화주의: 인용자) 개인이나 사회의 생활 내용을 충실히 하며 풍부히 함이니, 곧 부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과 도적의 순수와 종교의 풍성과 과학의 발달과 철학 예술의 심원오묘(深遠奧妙)라. 환언하면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문명에 공헌케 하며, 조선 강산으로 하여금 문화의 낙원이 되게 함을 고창하노니 이는 곧 조선 민족의 사명이요 생존의 가치라.<sup>28)</sup>

이어진 사설의 내용에 의하면, 신문화건설은 개인과 사회·국가의 유기체적 관계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사회가 민족이다. 유기체적인 민족정신과 대동단결의 상징으로 부각된 민족문화의 유구성과 고유성 정점에 단군이 있다. 단군은 세계사적으로 고대 문명에 견줄만한 조선 문명과 중국 문화에서 해방된 독자적인 조선 문화의 개창자였으며, 국민단합력의 기초인 국풍의 상징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여기서 단군의 선양은 단순한 복고적 취향의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근대적 신문화건설을 위한 민족의식의 상징으로서 재현된 전통이다. 따라서 1920년대 식민체제 안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단군을 선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sup>29)</sup>

이에 따라 동아일보의 최초 사업도 단군 영정을 현상 공모한 일이다. 동아일보는 창간 10일 만인 1920년 4월 11일자로 '단군 영정 현상 모집'을 공고하였다.

우리 민족의 종조이시오 우리 근역(權域)에 건국하신 제1인이시오 가장 신성하신 대 위인인 단군의 존상(尊像)을 구하여 독자와 공히 배(拜)하려고 현상 모집한다.<sup>30)</sup>

27) 박찬승, 앞의 책, p.176.

28) <동아일보> 1920.4.1(1), 「主旨를 宣明하노라」

29) 이지원, 앞의 논문, 330쪽.

30) <동아일보> 1920.4.11(3), 「단군 영정 모집」

그러나 응모가 부진하여 4월 30일로 정하였던 응모기간을 5월 15일로 연기했지만, 만족할만한 작품을 구하지 못해 9월 30일로 재차 연기하여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월 하순에 제1차 무기정간을 당해 중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단군영정 공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창사 이후 첫 사업으로 전개한 의도는 민족지를 지향하는데 따른 발상이었다.

두 번째 사업은 1921년 8월 백두산에 특파원을 보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 취지는 탐험이 아니라, “단군 탄강(誕降)의 성지요. 근역(權域) 산하의 조종이라고 전승되어 온 영산(靈山)”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일깨우려는 취지였다. 따라서 8월 21일부터 17회에 걸쳐 민태원의 「백두산행」을 연재하였고,<sup>31)</sup> 27일에는 권덕규의 「조선 역사와 백두산」이라는 제하의 강연회가 개최되었다.<sup>32)</sup>

단군영정 공모와 백두산 탐방으로 민족정신 고취를 시도하던 동아일보는 1925년 육당 최남선을 객원 촉탁으로 영입하면서 단군 선양 논조를 본격화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의 1인’으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1921년 석방된 최남선은 출옥 후에는 1922년 9월 주간지 《동명》을 창간하였고, 1924년에는 《시대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 부족과 총독부의 압력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이후 최남선은 1925년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계명구락부에 참여하였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던 송진우, 김성수와 뜻을 함께하고 《동아일보》에 객원으로 사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해 10월 조선신궁이 완성되어 천조대신과 명치천황을 제신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자, 단군 선양은 일제의 종교적 정신적 지배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최남선은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한국 고대문화의 세계사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제기하면서 동방문화의 근원지를 단군 신화의 무대인 백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1926년 2월 11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조선인 민족정신의 출발점이 되는 단군 국조를 의식적으로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sup>33)</sup>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5회에 걸쳐 「단군론」을 발표했다.<sup>34)</sup> 이와 같이 계명구락부와 동아일보의 연계 하에 추진된 단군 선양, 고문화 보급 등은 자치운동을 추진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의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성’의 고양을 내세우는 중요한 테마로 기능하고 있었다.<sup>35)</sup> 그 중심에는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가 자리하고 있었다.

## (2) 이 충무공 유적 보존운동

1930년 9월 20일 동아일보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묘소 위토가 경매에 팔릴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도했다.<sup>36)</sup>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인 1931년 5월 12일 고영환의 유적순례기가 실리는데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은행에서

31) 민태원, 「白頭山行」(전17회), <동아일보> 1921.8.21(1)-9.8.

32) 권덕규, 「공개된 聖山의 神秘: 權憲奎 씨의 백두산 역사 강연」, <동아일보> 1921.8.29(3).

33) 최남선, 「檀君否認의 妄 ‘文教의 朝鮮’의 狂論」, <동아일보> 1926.2.11-12.

34) 최남선, 「檀君論, 朝鮮을 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동아일보> 1926.3.3-7.25.

35)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249쪽.

36) <동아일보> 1930.9.20.(2). 「李忠武公廟閣이 頽落, 제로는 은행에 저당되고 春秋亨祀도 끄칠 地境」



경매를 최후 통지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다시 14일에는 이 문제를 ‘민족적 수치’라고 간주한 사설이 실렸고, 15일에는 성금 모금을 제안한 정인보(1893-1950)의 기고문이 게재되자 이날부터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계속하여 위토와 현충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의 사설, 기사 등과 성금 현황의 광고성 기사도 실었다.

한편 5월 23일 조선교육협회를 운영하던 유진태(1872-1941)의 주도로 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었다. 위원장으로 윤치호(1865-1945)가 선임되었고, 위원은 송진우를 비롯한 14인이었다.<sup>37)</sup> 이에 동아일보와 충무공유적보존회는 공동모금을 시행하면서, 성금의 관리는 동아일보, 집행은 충무공유적보존회가 담당했다.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다. 그는 기사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편집국장 이광수(1892-1950)에게 현충사에서 고금도까지의 순례기와 함께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할 것을 지시했다.<sup>38)</sup> 이에 이광수는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송진우의 권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 친구 고하(古下)는 과거 조선에 숭앙할 사람은 단군·세종대왕·이순신 3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하는 날더러 3부곡으로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을 쓰라고 권합니다. … 내가 그리려는 이순신은 이 총의로운 인격입니다. 상상이 아닌 옛 기록에 나타난 그의 인격을 내 능력껏 구체화하라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sup>39)</sup>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현충사나 위토 문제가 아닌 이순신에 대한 여러 유형의 글을 게재했다. 1931년 6월 1일부터 14회에 걸쳐 이광수의 「유적 순례」가 게재되는데 이어, 6월 26일부터 이듬 해 4월 3일까지 총 178회에 걸쳐 이광수의 장편소설 「이순신」이 연재되었다. 이밖에도 <이순신 초상화>(최우석 작), 《이충무공전서》 독후감, 충무공유물 설명문 등을 게재하였다. 모든 것이 송진우의 계획대로 실행되었다.<sup>40)</sup>

동아일보가 1931년과 1932년에 이렇게 이순신 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것은 성금 모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 1932년 5월 29일까지 해외동포를 포함한 2만1천여 명이 낸 성금은 16,021원30전이였다. 송진우의 언론경영인으로서 기획력과 민족주의자로서의 의지가 어우러진 성과인데, 이를 두고 이런 촌평이 나올 정도였다.

또 요새 이충무공 성금 모집도 2만 원을 돌파했으니, 이 돈 없는 조선에서 그만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신문의 위력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 아닌가.<sup>41)</sup>

이에 따라 1932년 6월 5일 아산에서 현충사 낙성식과 영정봉안식을 개최하였는데

37) 김주식,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한계」, 《이순신연구논총》 제37호(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2.12), pp.16-18.

38) 김학준, 앞의 책, 132쪽. ;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77·78·79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6), p.766.

39) <동아일보> 1931.5.23.(2). 「李光洙 作 李象範 畫, <李舜臣>(長篇小說) 六月 中旬부터 掲載」

40) 김주식, 앞의 글, p.32.

41) 무명거사, 「조선 신문계 총횡담」, 《동광》 제 28호(1931.12.1.).

전국에서 약 3만 명이 참석하였다. 현충사 낙성식은 현충사 정문 앞 관장에서 위원장 윤치호의 식사와 송진우의 경과보고, 백관수의 건축개요보고, 유억겸의 결산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존회는 후속 사업으로 한산도의 제송당 중건을 위해 송진우와 유진태를 통영에 특파하여 충열사보존회와 협의하였다. 곧이어 동아일보 통영지국을 중심으로 모금한 결과, 1933년 5월 25일 제송당을 준공하고 6월 2일 영정봉안식과 준공낙성식을 가졌다.

<표 2>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순신 관련 기사 현황(1931-1935)

연도	현충사·충무공유적보존회 기사	이순신 기사(연재소설)	계(연재소설)
1931	31	27(39)	58(39)
1932	9	20(139)	29(139)
1933	0	9	9
1934	1	4	5
1935	3	7	10
계	44	67(178)	111(178)

이처럼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1930년대 초반 민족주의 우파계열이 새로운 민족운동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sup>42)</sup> 이충무공유적보존회에는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이 위원으로 망라되었지만, 대부분이 명의만 빌려주고 보존 활동과 실무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신문들도 냉담한 반응이었다. 이에 편승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주장과 더불어 조선일보사의 냉랭한 태도와 동아일보사의 지나친 몰입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이순신을 거하여 정신적으로 민족적 동원을 시험하여 성공한 동아일보의 태도 근래에 상영(爽英)하다. ... 그런데 조선은 싸움하기에, 동아는 죽은 이순신 찾기에 너무 취하여 예년의 하기 봉사도 금년은 물로 씻은 듯이 (없어)졌다.<sup>43)</sup>

그에 반해 송진우는 1917년 중앙학교장 시절 삼성사(三聖祠)건립기성회를 조직하여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의 사당을 남산에 건립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일제의 조선신궁 건립으로 실패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에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 문제에 대한 첫 기사가 나간 후 송진우는 정인보를 찾아가 “삼성사 계획이 실패한 뒤로 이런 일을 하나 하지 못해 늘 꺼림칙하더니 마침 잘 되었소. 그 산판을 후손들에게 도로 찾아주고 거기다가 현충사를 짓는 것이 어떨까요.”하고 상의했다.<sup>44)</sup> 이때부터 송진우는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얼마나 몰두했는지 이를

42) 김도형,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 제15호 (2011.6), pp.28-33.  
 43) 「회고·수기 신문 야화」, 《삼천리》 제3권 9호(1931.9.1.).  
 44) 앞의 『고하 송진우 선생 전』, 65쪽.

두고 동아일보가 소비한 지면이 너무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는 지적까지 등장했다.<sup>45)</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원래 목적을 달성했고 동아일보는 성공을 거두었다. 동아일보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민족 신문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46)</sup> 무엇보다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을 계기로 잠재된 민족의식을 대중적 차원의 민족운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민족적 지정의 결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sup>47)</sup>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1936년 8월 25일 발생한 일장기말소사건 때 신문 제작에 참여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임병철(1906-1947)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을 비롯하여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브나로드운동 등의 동아일보가 시행한 문화운동들이 모두 ‘열(熱)의 신문인’으로 불리던 송진우 사장이 민족주의의 본색을 발휘한 행동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sup>48)</sup>

## 2) 동아일보의 사회·문화운동

### (1) 민립대학설립운동

1920년 6월, 사회지도자 1백 명이 윤치소(윤보선의 부친)의 집에서 조선교육회설립 발기회를 열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음을 개탄하고 빠른 시일에 민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역사적으로 국채보상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09년 대구와 동래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6백만 원의 거액이 답지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그 사용처를 잃어버렸다. 이에 윤치호·박은식(1859-1925)·남궁억(1863-1939)·양기탁(1871-1938)·노백린(1875-1926) 등이 기부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민립대학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데라우치(寺內正毅, 1852-1919) 총독 시절 총독부에 설립인가를 요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차에 3·1운동이 일어난 후 새로 부임한 사이토(齋藤實, 1858-1936) 총독이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1922년 1월 일본 정부가 조선에도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자, 이상재·이승훈·윤치호·송진우·김성수 등의 주도하에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1923년 3월 29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선결 문제가 교육에 있으며,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있다는 민립대학발기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본격화하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동아일보이다. 「개회된 민대 총회」라는 머리기사로 설립자금은 1천만 원이며, 법(法)·경(經)·문(文)·리

45) 이돈화, 「조선 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 《개벽》 1935년 3월호, p.30.

46) 김주식, 앞의 글, 55쪽.

47) 김도형, 앞의 글, 11쪽. ; <동아일보> 1932.6.3.(1), 「民族的至情의 結晶, 忠武公 遺蹟의 完保」

48) 임병철, 「인물 소추 : 송진우」, 《신천지》 1권 1호(1946.2), 28쪽.

(理)를 시작으로 의(醫)·농(農)까지 9개 학과를 3기에 걸쳐 설치하기로 한 소식과 함께 발기취지서를 실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들 분야가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닐 수 없다.<sup>49)</sup>

이날 이후 전국 곳곳에 지방부를 설립하고 모금을 진행했다. 조선 본위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선전과 강연도 이어졌다. 1923년 말까지 동아일보 4면에는 지방부 소식이 실리지 않는 날이 없다시피 했다. 이처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활기를 띠자 총독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립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세운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1924년 4월 예과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때까지 민립대학은 설립인가가 나오지 않았던 데다가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자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게 되었다.

## (2) 조선물산장려운동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1882-?)·오윤선(1871-?) 등이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자, 1923년 1월 9일 유진태(1872-1942)·이종린(1883-1950)·백관수(1889-1961) 등 20여 단체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일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선물산장려회를 출범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2월 16일 설날에 맞추어 수천 명의 남녀가 무명으로 짠 두루마기와 치마를 입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가 찍힌 전단을 나눠 주려다가, 2일 전에 종로경찰서의 ‘금지’ 통보를 받고 행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가 강제로 중단시킬 만큼 큰 잠재력을 지닌 실력양성운동이었는데, 이면에는 동아일보의 숨겨진 역할이 자리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 조만식과 각별한 교제를 나누던 송진우는 물산장려운동의 추이를 주목하다가, 1923년 들어 1월 5일부터 연속하여 4일간 사설을 싣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 다음날 서울에서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5일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어서 2월 16일자 지면에는 무산된 정월 초하루 물산장려운동 행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조선물산장려회 깃발과 휘장도 안내하였고, 선전지 문안과 신문관과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선전지 6만 장을 무료 인쇄해 준 소식도 담았다. 부산·군산·성천지방 등의 물산장려운동 움직임도 자세히 보도했다.

이후 경제자립과 소비 절약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물산장려회·자조회·자작회·토산장려회와 같은 단체가 생겨나고 금주금연 바람도 확산되었다. 유치원생들은 ‘토산 장려’ 깃발을 들고 “우리는 우리 것을 먹고 입고 삼시다.”고 외치고, 기생들도 “우리 옷감으로 옷을 해 입자.”고 결의했다. 이처럼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의 3·1운동’으로

49) 「민립대학발기취지서」, 《동아일보》, 1923.3.30.(7).

인식되었지만 식민지 상태에서 자급자족 경제로 살길을 찾으려는 방식은 이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물산장려운동이 성공하면 토착 자본가들이 지배자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프롤레타리아 무산자들은 물산장려운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공세를 집요하게 펼쳤다. 1923년 3월 조선청년당대회에서 ‘물산장려운동 타도’를 결의하자, 국내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로 이름이 높았던 이순탁 연희전문 교수는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려면 경제를 발전시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싼 이론 투쟁에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했다. 이처럼 동아일보가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은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민족운동이자 항일운동이라면, 물산장려운동은 경제적인 항일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922년 11월 1일 자 1면에 <생활적 의식을 철저히 하라, 민족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사설을 싣고, “민족운동은 공막한 규호(叫號)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제를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민족운동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민족운동을 제창하였다.

한편 총독부는 음성적으로 끈질긴 방해공작을 펼쳤다. 무엇보다 국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대적인 공장이 없던 실정이어서 이 운동을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는 없었다. 소규모의 토착 방직업체도 일본산 실이 없으면 옷감을 짤 수 없었다. 그러나 민족 전체에 독립운동은 정치운동만이 아니라 국산품 애용, 물산장려운동도 한 가지 길임을 일깨워 준 뜻깊은 사건이었다.

### (3) 브나로드운동

1931년 5월 이층무공유적보존운동이 힘차게 발족된 후, 7월부터는 브나로드운동이 동아일보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본래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러시아 말에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면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구호이다. 1874년에 수많은 러시아 학생들이 이 구호를 앞세우고 농촌으로 가서 계몽운동을 벌였는데, 그 뒤부터 이 말이 계몽운동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동아일보는 조선의 2천만 인구 중에 1천3백만 명에 달하는 문맹자를 일깨우려는 의도에서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제3회까지 이 운동은 ‘브나로드(vnarod)’라고 불렀으나, 제4회부터는 계몽운동으로 바뀌었다. 송진우 사장은 브나로드운동을 민중이 스스로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광수에게 운동을 뒷받침하는 연재소설을 동아일보에 쓰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흙》이다. 《흙》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가서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재소·면사무소에도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도 글을 가르쳐 주고 소비조합도 만들어 주고 뒷간 부엌 소제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이 대목은 《흙》의 주인공 허송의 입을 통해 농촌 참여를 적극 부르짖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자! 농민 속으로 파고들자”라고 학생과 지식인, 민족의 일꾼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애당초 브나로드운동은 1928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 8주년 기념행사로 문맹퇴치운동을 펼치기로 사전에 예고 선전하다가, 총독부 경무국의 금지 명령에 따라 중지된 바 있었다. 이듬해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문맹타파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에 기선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에 자극을 받고 주위의 정세가 완화되자 브나로드운동은 조선일보 문맹타파운동을 상대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1931년 7월 16일 ‘봉공적 정신을 함양하라, 하휴와 학생 브나로드운동에 부처’라는 1면 사설로 브나로드운동의 시작을 알린 동아일보는 7월 25일 제1회 조선어강습회를 주최하였다. 조선어학회 후원으로 신명균·권덕규·이상춘·이윤재·김윤경·이병기·최현배·이극로·김선기 등을 강사로 위촉하였고, 전주·군산·여수·목포·해주·통영·흥원·마산·청진·부산·회령·밀양·용정·안성·선천·개성·평양·수원·정주·인천·함흥·신천·김천·대구·원산·대전·진남포 등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동아일보는 지면이 허용하는 대로 브나로드운동의 계획·진행·경과를 대서특필하였고, 일제 당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문맹퇴치와 위생 확보 및 생활 여건 개량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전후 4년간에 걸쳐 10만 명에 가까운 문맹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4.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에 대한 재평가

##### 1) 신 지식층의 대두와 고하의 「사상개혁론」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망국의 충격 속에서 일본에 유학한 청년들은 신학문을 배워 일본인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전의 유학생들보다 훨씬 실력주의에 몰입하였다. 매년 500-600명의 유학생이 주로 메이지대(明治大), 와세다대(早稻田大), 게이오대(慶應義塾), 주오대(中央大), 니혼대(日本大) 등 사립학교에 진학하여 일제에 대한 ‘반골 정신’과 학문적 대응 의식을 함양하며 근대 서구 학문을 수학하였다. 국망 이후 독자적인 정치·경제활동이 차단된 상황에서 문명적 실력을 갖추는 ‘학문의 길’로 나아갈 것을 모색한 결과로 주로 정치, 법률, 경제학을 전공하였다.<sup>50)</sup> 이들은 재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학지광(學之光)>을 발행하고 강연회를 여는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초기 학우회 발족과 <학지광>의 발간을 주도한 이는 송진우와 김병로였다.<sup>51)</sup>

이 시기에 일본은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과 함께 정치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적

50) 이지원, 앞의 책, pp.122-124.

51) 윤덕영, 앞의 논문, p.47.

부르주아층의 요구를 대변하는 민본주의 사조가 등장하고 문학,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 사조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지적 풍토 속에서 이 시기 유학생들은 한말 계몽운동기보다 한층 진전된 근대 자본주의적 사상을 키워갔다. 서구 자본주의 문명처럼 개인의 발전과 경쟁을 토대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19C 서양의 개인주의 사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이 같은 사조를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글이 고하 송진우의 「사상개혁론」이다.

고하는 1915년에 발표한 「사상개혁론」에서 신시대는 신생활을 요구하고 신생활은 신사상에 배태된다고 지적하면서 공교(孔敎)의 타파를 주장하였다.<sup>52)</sup> 이어 개인주의는 구시대·전제시대의 산물인 가족제(문벌제)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립과 자유를 완성하는 ‘문명이상(文明理想)’을 실현하면서, 중농주의 사회에서 통상주의(자본주의) 시대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

個人은 家族線을 경유하여 사회에 到着할 것이 아니라 直線으로 사회를 貫通하게 할 것이니 如此하면 萬里獨治하여도 家庭의 顧가 無하여 事業을 완성할지요. 父老의 저가 無하여 社會가 발전할지로다. 噫라. 가족을 周圍하여 固着된 重農主義는 과거에 귀속하였고 個人을 중심하여 流動하는 通商時代는 現在에 到來하였으며(하락)<sup>53)</sup>

또 고하는 개인의 자립을 위해 가족제·가족주의 자체의 타파를 부르짖으면서, 강제 결혼에 대해서 계급 결혼의 나쁜 결과를 가져오며 조혼의 말폐(末弊)를 발생케 하고 작첩(作妾)의 악습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주장하였다.<sup>54)</sup> 이 같은 고하의 가족제에 대한 생각은 후일 인권문제로 발전한다. 그는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사설로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의 내용이다.

대개 인류로써 자유권이 없으면 철저히 개성의 능력을 발전할 수 없으며 또한 생존권이 없으면 협동적 최고 문화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양대 권리의 확충 발전에 의하여, 어시호(於是乎) 인류사회에 평화의 서광이 조림(照臨)될 것이며 또한 최고의 문화가 완성될 것이다. … 개인으로 사회에 대하여 최소한도에 있어서 최후의 생존권을 주장할 이유가 자임하며 사회에서도 각개 생존을 확보할 의무가 고유할 것이다. 어시호(於是乎) 박애평등의 대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sup>55)</sup>

이와 더불어 고하는 「사상개혁론」에서 유교가 들어온 후 민족정신, 무용(武勇)사상, 미술·공예 등이 파괴되었고, 문명사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유교 수입 이전의 조선 고유문화와 민족정신 즉, 국수를 되살려서 새로운 문명을 재건하는 초석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52) 송진우, 「사상개혁론」, <학지광> 5, 1915, pp.2-3.

53) 위의 글, p.5.

54) 위의 글, p.6.

55) 송진우, 「자유권과 생존권, 차이점과 일치점」, 동아일보 1925.1.12., 15.

우리 사회는 孔敎를 수입한 이후로 … 神嚴한 民族精神은 是로 以하여 破壞되었으며, 壯熱한 武勇思想 是로 以하여 銷沈되었으며, 찬란한 美術工藝는 是로 以하여 殘滅되었도다. … 是으로 茲에 國粹發揮를 急叫코져 하오니 吾人의 生命은 太白山神檀樹에서 神聖出現하신 大皇祖께서 창조하셨나니, 깨우서는 領土 家屋을 開創하셨으며 禮樂 文物을 制定하셨으며 血肉精靈을 分布하셨으니 吾人의 生命을 集合하면 四千年前의 渾全한 一體가 될지요 分布하면 二千萬族의 分派된 支流가 될지로다. … 然하면 吾人이 大皇祖를 崇奉하며 尊祀함은 事先追遠의 至極한 精誠이요, 啓後開來의 當연한 의무가 될지며(하략)<sup>56)</sup>

이 같은 고하의 주장처럼 이 시기 신문명의 발전을 위한 사상의 혁신에 있어 전통 즉 ‘국수’를 보존하고 발휘하는 것은 유교의 영향력을 타파하고 신문명을 건설하는데 유용한 신사상으로 재 창출되었다.

## 2) 고하 송진우와 국수사상(國粹思想)

1920년대 민족 일치를 위한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부각이 된 것은 단군이였다. 일제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하며, 조선인 중심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키워가고자 하였던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민족의식·문화의식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그것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 가치를 드러내고 대내적으로 민족일치 민족단결의 구심점으로서 단군을 선양하는 것이였다.<sup>57)</sup>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朝鮮人의 精神은 朝鮮魂으로 出함이며 朝鮮人의 生活은 朝鮮式으로 營함이니 이 朝鮮式과 朝鮮魂은 그 역사가 실로 長且遠하니라. 聖祖 檀君께서 그 式과 그 魂을 창조하신 후 至今 四千餘歲에 半島의 地軸에 그 魂이 깊이 印刻되고 半島의 地面에 그 式이 널리 充滿하여 이에 그 魂으로 朝鮮人을 生하며 그 式으로 朝鮮人을 養하니 그 魂으로 生한 人이 엇지 그 魂을 망하며 그 式으로 養한 人이 엇지 그 式을 脫하리오,<sup>58)</sup>

이렇게 조선인의 정신과 생활은 단군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 민족은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정신과 생활의 유구한 역사적 총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런 점에서 단군 정신은 구사상을 개혁하고 민족문화의 가치를 발휘하는 출발점으로 설정되었다. 이런 사상적 조류의 중심에 선 인물이 고하 송진우이다. 고하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단군 국수사상을 주장하였으며, 1917년 중앙학교 교장 시절에는 단군 선양을 위한 ‘삼성사(三聖祠) 건립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를 남산에 세울 계획을 추진한 바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동아일보가 창간과 동시에 단군영정현상공모사업을 시행한 것이나 매년 음력 3월 15일의 어천절(御天節)과 음력 10월 3일의 개천절(開天節)에 대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은 단군 국조 국수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민족의식의 계몽을 통해 민족운동의 대중적 지도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것은 고하가 대종교 청년회 주최 기념강연회에 연사로 참가하여 단군 국조 숭배를 강조한데서도 알 수가 있다.<sup>59)</sup>

56) 앞의 「사상개혁론」, pp.3-4.

57) 이지원, 앞의 책, pp.221-222.

58) 동아일보 1920.6.22. 사설, 「自精神을 喚하고 舊思想을 論」



한편 일제 강점을 계기로 확산되던 단군 중심의 국수보존론은 외공(外觥)을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의식 인격적 발달을 통해 실력을 갖춘 민족으로 발전하기 위한 문명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하를 비롯한 신지식인들은 국수주의를 강조했지만,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보다는 민족유기체의 문명적 생존과 진보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국망의 현실 속에서 민족유기체의 생존과 자립 역량의 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존경쟁에 필요한 실력양성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선혼·민족의식 등의 ‘국수’를 강조하였다.<sup>60)</sup>

그러면 신지식층의 ‘국수주의’는 실력양성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10년대 실력양성론은 신지식층이 일본 유학 등을 통해 외래의 근대적 문명 수입에 압도되어 ‘산업 진흥’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sup>61)</sup> 그렇지만 이들에게 국수적 민족의식은 자본주의적 산업 진흥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1915년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하면서 조선혼의 고취와 정신적 결합의 도모를 강조한 것은 그 반증이기 때문이다.<sup>62)</sup> 고하 송진우는 이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1936년 8월 25일 발생한 일장기말소사건 때 신문 제작에 참여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임병철(1906-1947)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을 비롯하여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브나로드운동 등 동아일보가 시행한 문화운동이 모두 ‘열(熱)의 신문인’으로 불리던 송진우 사장이 민족주의의 본색을 발휘한 행동의 결과라고 증언하였다.<sup>63)</sup>

### 3) 고하 송진우의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는 1925년 7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6월 11일에 출국하였다. 그는 하와이 가는 길에 “포와 가는 길”이라는 글을 4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태평양 회의에 11일간의 양상(洋上)생활”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기고하였으며, 귀국한 후에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장문의 논설을 연재하였다.

이 가운데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는 고하의 대표적인 논설로서 당시 민족주의 우파의 국제정세 인식과 운동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하는 침략적 군국주의 국가 독일과 러시아의 붕괴를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의미로 언급하면서, 20세기는 공산주의의 확장으로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러시아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는 침략적 군국주의인 독일과 러시아의 붕괴이며,

59) 동아일보 1921.11.3.

60) 이지원, 앞의 책, p.134.

61) 박찬승, 앞의 책, p.140.

62) 경기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p.260 ; 이지원, 앞의 책, p.134.

63) 임병철, 「인물 소추 : 송진우」, 《신천지》 1권 1호(1946.2), p.28.

민족운동에 있어 발칸반도 국가들과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 아일랜드의 독립이 완성되었다. 그뿐 아니라 20세기는 '적로사상(赤露思想)의 발전시대'로 세계가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러시아로 재편되면서 세계 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다.<sup>64)</sup>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적 중산계급(中産階級)'으로 미국과 경쟁 발전하는 것도 실력이 모자라고, 볼셰비키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민 문제와 중국 문제로 미국의 자본적 제국주의와 충돌하고, 영국이 미국과 일본의 충돌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미(日美) 충돌'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이어 조선 내부의 사회적 변혁과 세계 대세의 추이와 동양 정국의 위기로 볼 때 4-5년을 지나지 않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적 풍운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66)</sup>

고하는 이런 정세 인식하에서 조선 독립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제가 가장 민족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문화적 은택이 막심한 조선 민족을 유린, 압박하는 것은 반만년 역사적 배경과 이천만 민중의 총명을 가진 조선 민족으로서 철골(徹骨)의 한이 된다. 조선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중일 친선'과 동양 평화도 구두탄(口頭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주지와 목표가 민족적으로 자유·생존·평화의 3대 사상에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민족적 자유를 해결할 것이요, 둘째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요, 셋째 세계적 평화에 노력할 것이다.<sup>67)</sup>

이같이 민족의 자유를 해결하고,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독립의 방안으로 제시한 고하의 주장은 마치 3.1독립선언서의 외침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리고 침략적 군국주의 국가인 독일과 러시아의 붕괴를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언급하면서,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16년 전인 1925년에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고, 20세기는 볼셰비키 러시아와 자본주의 모범 미국의 패권 경쟁이 될 것을 예상한 주장은 실로 예언자적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하는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상적 훈련과 민족적 단결'로 준비하고, 통일된 사상하에서 중심적 단결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외세의 파동보다,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 세력의 확립과 해결이 필요하며, 조선 문제는 민족자결의 단합이 확립되는 그날부터 해결될 것이다.<sup>68)</sup>

#### 4) 고하 송진우의 '자치론'에 대한 평가

64) 송진우,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7), 《동아일보》 1925.9.3.

65) \_\_\_\_\_,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8), 《동아일보》 1925.9.4.

66) \_\_\_\_\_,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9), 《동아일보》 1925.9.5.

67) \_\_\_\_\_,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10), 《동아일보》 1925.9.6.

68) 위와 같음.

고하는 논설 발표와 함께 곧바로 행동에 착수하였다. 논설 발표 직후인 9월 15일 백관수, 최원순, 안재홍, 백남운 등과 사상계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조사와 비교하는 연구 조직으로서 조선사정연구회를 결성하였다.<sup>69)</sup> 기존의 연구에서 조선사정연구회를 비타협민족주의자 또는 민족주의 좌파가 주도하여 결성했다는 주장은<sup>70)</sup> 틀린 말이다. 또 조선사정연구회가 총독부의 간여와 유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도<sup>71)</sup> 틀린 말이다. 일제의 관련 기록에 나타난 결성의 진의 또한 장래 민족운동 기관으로 삼는데 있었다.<sup>72)</sup>

한편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 실린 고하의 국제정세 판단과 문제의식은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었고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라는 성과로 연결이 되었다. 그는 신흥우와 유억겸 등과 함께 1925년 11월 28일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발기인 모임을 열었다. 그의 전략은 민족적 실력을 착실히 쌓으면서 '미일전쟁과 같은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외교독립론'의 이승만과 '실력양성론'의 기독교 및 동아일보 계열은 방법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sup>73)</sup>

여기서 말하는 고하의 전략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력양성운동'으로서 일제 지배 하에서의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한 자치운동을 제창한 것이다.<sup>74)</sup> 고하는 일본과 다른 제국주의의 전쟁을 얘기하며 그들의 원조를 기대하는 대기론적 정치운동을 비판하고, 즉시 조선 민족 자체 세력에 의해 조선 민족의 중심 세력을 확립해서 조선 민족 자체 세력에 의해 조선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운동 즉 자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sup>75)</sup> 이것은 1924년 1월 '조선의회 설립'과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결성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연정회(研政會) 부흥으로 연결되었다.<sup>76)</sup>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치'는 '독립'을 포기한 '타협'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쓴 '회유의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강동진은 총독부 권력에 따른 식민지 지배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이토 총독이 김성수와 송진우를 불러 조선의 정치를 하는데 백정(白丁)이 한다면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좌익에 반대한다는 핑계로 자치·참정운동을 일으키라고 권유했다고 한다.<sup>77)</sup> 그러나 총독부의 권유로 자치운동을 일으켰다는 강동진의 주장은 동아일보가 1926년

69)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pp.75-76.

70)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p.42-43.

71) 강덕상, 앞의 책, p.350, 419.

72) 「獨立運動終熄後の民族運動の概要」, 『齊藤實文書』 10(民族運動 2), 東京 高麗書林, 1990, p.235 ; 윤덕영, 앞의 논문, p.116에서 재인용.

73)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한국역사연구회, 1991), p.307. - 주목해야 할 것은 송진우가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발표한 시점이 1925년 9월로 1941년 8월에 출판된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 보다 16년이나 빠르다는 점이다.

74) 박찬승, 앞의 책, p.328. ;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p.304, 310.

75) 김동명,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협력의 경계와 논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p.57.

76) 강동진, 앞의 책, p.422.

77) 위의 책, p.422, 428.

3월 5일 자에 「국제농민본부의 조선 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게재한 혐의로 2차 무기정간을 당하고, 4월 26일 송진우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산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때 송진우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남긴 소회를 통해, 그를 둘러싼 중상과 비난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나는 일찍이 24개월의 감옥 경험이 있으니 이제 새삼스러이 옥고를 놀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분규와 반목이 많습니다. 동족끼리는 물론 심하면 동지 간에도 서로 중상과 비난을 일삼는 예가 또한 적지 않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일부에서 무슨 비난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입감은 그 비난을 완화 혹은 소멸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sup>78)</sup>

이렇게 송진우의 구속사건은 1925년 후반부 이래 추진해온 송진우 주도의 합법적 민족운동이 총독부와는 연결되지 않고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더구나 그의 구속은 소위 '연정회 부활운동'으로 회자되던 1926년 10월 14일 모임의 실패 직후에 이루어졌다. 만약 '연정회 부활운동'이 일제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와 일정한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의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송진우의 입감 소감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구속으로 그가 추진하던 합법적 정치운동이 타협적 자치운동이라는 혐의는 사실상 벗겨졌다.<sup>7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하를 비롯한 동아일보 계열의 자치운동을 일제와 타협한 정치행위로 폄훼한 강동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승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강동진의 주장은 다시 돌아보아도 실체도 없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1979년에 제출된 그의 저서명은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다. 오히려 필자가 강동진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든 생각은 '자치론'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를 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온건하지만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강동진의 연구는 민족운동 역량의 분열을 꾀하는 식민 정책의 본질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인이 생산한 자료에 의존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 또한 그가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민족운동의 모습과 독립을 상정해 놓고 그에 맞지 않으면 모두 일본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민족개량주의·문화운동·실력양성운동 등은 아베 마쓰이에와 같은 일본인들의 공작과 조선총독부의 회유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하였다.<sup>80)</sup>

또 강동진의 '일본의 지배정책사 연구'를 '정치사상사 차원'으로 심화시킨 박찬승은 '자치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치운동론은 민족운동의 목표를 '독립'에서 '자치'로 끌어내린 것을 의미

78) 송진우, 「옥문의 송영 -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신민》 2-12(1926.12), p.32.

79) 윤덕영, 앞의 논문, p.155.

80) 이승렬, 앞의 책, pp.526-528.

했고, 따라서 그것은 민족주의 우파의 일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의미했다. 자치운동론은 일제 권력에 밀착되어서 예측하고 있던 일부 민족자본가 최상층의 입장에서, 또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 가운데서도 일제의 정치적 지배를 불가피한 현실로서 인정하고 일제 권력에 타협하자는 입장에서 나온 운동론이었다.<sup>81)</sup>

그러나 ‘자치’는 ‘독립’을 포기한 ‘타협’이라는 주장과 달리, 미·일이 충돌하리라는 송진우의 예상은 16년 후에 실현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그 결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sup>82)</sup> 조성구가 강덕진에게 실력양성운동과 자치운동을 ‘타협’과 ‘비타협’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염두에 둔 광복(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sup>83)</sup>

## 5. 맺는말

올해는 한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해방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새 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한 고하 송진우가 불의한 흉탄에 서거한 지 80주기가 된다. 고하가 사망한 후 그가 주도한 일제하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은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문화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적 애국주의를 드러낸 자주독립운동의 일환’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일제의 동화주의 문화정책에 저항한 민족운동’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고하의 독립운동 행적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던 것이 1975년 ‘동아일보 강제 해직 사건’이 일어난 후 일어난 사주 일가에 대한 비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언론인들에 의해 일제하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으로 전이(轉移)되었다. 주로 민주화운동의 열기 아래 저술된 해직 언론인들의 저서들인데, 계급투쟁에 기초한 민중사관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철저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된다. 이때부터 동아일보 사장으로 문화운동을 주도한 고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1980년에는 재일사학자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가 역사학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등실 일기>에 나타난 사이토 총독과 민족주의 우파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는데, 송진우·김성수·이승훈·장덕수·이상협 등 동아일보의 주요 인사가 망라되었다. 그는 “이러한 민족 개량주의자들은 식민지 당국자의 계략에 빠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역사학계에서는 동아일보 계열의 인사들을 ‘타협 세력’으로 단정 짓게 되었다.

그러나 총독부 권유로 자치운동을 일으켰다는 이 같은 주장은 동아일보가 1926년 3월 5일 자에 「국제농민본부의 조선 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게재한 혐의로 2차 무기 정간을 당하고, 4월 26일 송진우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데 이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산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그의 구속은 소위

81) 박찬승, 앞의 책, P.356.

82) 이승렬, 앞의 책, p.523.

83) 조성구, 앞의 책, p.240.

‘연정회 부활운동’으로 회자 되던 1926년 10월 14일 모임의 실패 직후에 이루어졌다. 만약 ‘연정회 부활운동’이 일제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와 일정한 연계 관계를 가졌더라면 그의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하의 입감 소감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구속으로 인해 그가 추진하였던 ‘합법적 정치운동’이 ‘타협적 자치운동’이라는 혐의는 사실상 벗겨졌다.

또 강덕진의 ‘일본의 지배정책사 연구’를 ‘정치사상사 차원’으로 심화시킨 박찬승은 ‘자치’는 ‘독립’을 포기한 ‘타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치’는 ‘독립’을 포기한 ‘타협’이라는 박찬승의 주장과 달리, 일본이 미국과 충돌하여 패망하리라는 송진우의 예상은 16년 후에 실현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그 결과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고하의 명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이다. 고하는 1925년 9월에 발표한 논설에서 침략적 군국주의 국가 독일과 제정 러시아의 붕괴를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으로 언급하면서, 20세기는 공산주의의 확장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러시아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적 중산계급’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것은 실력이 모자라고, 불세비키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민 문제와 중국 문제로 미국의 자본적 제국주의와 충돌하고, 영국이 미국과 일본의 충돌을 촉진 시키기 때문에 ‘일미(日美) 충돌’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조선 내부의 사회적 변혁과 세계 대세와 동양 정국의 위기를 생각할 때, 4-5년을 지나지 않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적 풍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고하의 주장은 1941년 8월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언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보다 16년이나 빠르다는 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성구가 실력양성운동과 자치운동을 ‘타협’과 ‘비타협’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염두에 둔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지적한 것처럼, 시대를 앞서가던 선각자 고하 송진우의 안목과 식견을 이해하지 못한 후대 연구자들의 불찰이었음을 알게 한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사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1943-)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세력은 식민지 본국 및 총독부와 정치적 동맹을 맺은 관료적 기생적 지주와 미약한 부르주아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해방 직후 결성된 한민당은 지주에 토대를 두고 지도자 대다수가 친일 경력을 가진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커밍스의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조선의 민족부르주아지 및 우익 정치세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입장의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커밍스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 발전 노력이 가진 동력이나 발전 경향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커밍스는 초기 한민당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고하의 정치사상과 다이쇼 데모크라시기의 사상과의 관련성이나 그의 또 다른 명논설 「자유권과 생존권」

등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 최대의 사회경제적 과제인 토지개혁을 비롯한 경제건설론 전반에 대한 고하의 인식과 한민당의 정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고하와 한민당에 대한 커밍스의 비판 또한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독립 운동이라고 전제할 때, 3.1운동이 일어난 후 민족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민족자결의 '세계 개조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운동이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한 것이 자본주의 문명 수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이며, 동아일보는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0·30년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사회 발전과 독립역량 배양을 위한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전통문화보존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자치운동, 브나로드운동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고하는 사장(12년8월), 고문(1년), 주필(2년 4월) 등 16년간에 걸쳐 동아일보를 이끌며 문화운동을 지휘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이 곧 고하의 민족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하와 동시대를 살았던 언론인들이 그를 향해 부르던 애칭이 '조선의 정객'이다. 그만큼 국제정세에 밝고 국내 문제에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었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해방 공간의 정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 총독부로부터 조선 반도의 치안권 이양을 거부했던 그는 해방이 된 후에도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하던 중,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소식을 듣고 정치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 규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앞장섰다.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안착을 도와서 공산주의 세력의 독주를 막아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 12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던 《동아일보》를 복간하고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와 동아일보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반탁을 주장하다가 12월 30일 극우 청년들에게 피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해방 직후 127일간 보여준 보국 헌신의 열정이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고하 송진우'가 독립운동에 끼친 공적은 참으로 지대하다.

따라서 일제하의 국내 민족운동을 대변하는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의 역할을 재조명할 때, 한국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미주지역 외교활동과 더불어 입체적이고 균형감 있는 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